2022년 제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2. 25. ~ 3. 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2. 25.	시청률	0.001

【총 평】

‘선진경제로의 도약, 지난 5년 한국경제 성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등 악재 속에서도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도약해 글로벌 톱10에 재진입한 성과 등을 부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한국경제의 성과를 정상외교, 대외 경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부문별로 분석하며 정부와 국민들의 노고를 돌아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탄소중립 등 녹색산업 부문에 성과를 냄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한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를 유지 결정과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뜰신잡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선진경제로의 도약, 지난 5년 한국경제 성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지난 5년간 한국경제의 성과를 부문별로 상세히 진단해 정책홍보 효과를 높였다. 오미크론 확산 정점을 찍은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수 감소에 따른 정책 변화를 소개하며, 그동안 방역을 철저히 했거나 확산이 늦은 중국,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의 상황과 개학을 앞둔 정부의 대책을 상세히 소개한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비즈니스 셀러리맨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평가하며 경제외교 업적과 G7 초청 의미를 설명해 준 구성이 돋보였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프라, 방위산업,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했으며, 기후변화, 보건 백신 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후진국의 산업발전 경제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자금(ODA) 제공에도 많은 기여를 했으며, G7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초청받았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문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정상외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가별 공동사업 추진, 미래 먹거리 창출, 백신허브 국가 지정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왔을 때 위기수습만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개척하고, 경제를 더 튼튼히 만들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 지역균형을 목표로 추진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탄소중립 등 녹색산업 부문에 성과를 냄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청자 이해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2. 25.	시청률	0.008

【총 평】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슈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의성 있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또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 행사권을 강조하였고 호주 멜버른의 재외 교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시기를 겪은 해외 교환학생의 지원 증가 소식과 코로나19 속에서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만학 어르신의 졸업식 현장이 인상적이었다. 이 밖에 전국 최초 환경 공무관 쉼터 설치는 청소와 경비 근로자 휴게 시설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8월부터 사업장의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복지 정책을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 '다시 해외로' 대학 교환학생 지원 급증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어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이 아닌 다른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려는 학생들의 기대가 크다.

■ 3·1 정신 배우는 '서대문형무소·딜쿠샤'

3.1 운동과 일제의 탄압에 항거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렸던 알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던 딜쿠샤는 현재 역사문화관으로 단장되어 있다. 서대문 형무소, 딜쿠샤, 경교장 등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항거하던 우리나라의 국민정신을 가르쳐주는 교육장이다.

■ 일제 잔재 방공호·인공동굴 '역사체험장'으로

목포 시내의 일제 강점기 방공호는 한국인을 강제동원해서 만들어졌는데 개인 사유지여서 역사적 장소라는 안내 팻말이 없다. 일제 강점기 약탈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이므로 교육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 제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

오는 9일 20대 대선에 앞서, 재외국민투표가 115개 국가 219개 투표소에서 진행중이다.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투표가 시작된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외투표소 현장을 소개하며, 유권자가 투표하는 과정과 투표하는 방법을 전달했다.

■ 한복, 이젠 회사와 학교에서 입어요

서울 중심가에 복원된 옛 서울역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우리의 한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복 근무복과 교복을 전시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빚어진 '한복 정통성 논란'과 관련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되돌아본 뜻깊은 자리였다.

■ 만학의 기쁨 가득 '어르신 문해학교' 졸업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한을 풀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의 문해학교 졸업식 현장은 어르신들의 남다른 감회를 잘 담아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2. 26.	시청률	0.001

【총 평】

‘한류 팬을 위한 추천 여행지와 사찰음식 체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3년간 분석한 ‘2022년 국내 관광 트렌드’ 해빗-어스 여행’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국내 중소 도시를 소개했다. ‘힐링 여행’은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제천, ‘스테이케이션’은 경기도 양평과 충청북도 단양을 소개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과 먹거리로 안동 찜닭, 간고등어, 헛제삿밥 등을 방송했다. 서울과 제주 등 대도시 위주에서 벗어나 외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한국의 특징적 미를 보여주는 중소도시 여행지를 추천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어울렸다.

【구성 및 내용】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년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국내 관광 트렌드 해빗-어스 여행’을 발표했다. 해빗-어스는 Anyone, Beyond, in a wink, Therapy, Usual unusual, Special Me의 앞 글자를 딴 단어로 각 의미에 맞게 여행 취향을 분석했다. ‘힐링 여행’의 경북 영주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소수사원’을 비롯해 부석사와 무섬 외나무다리 등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관광지가 있다. 특히 무섬 외나무다리는 지난 350여 년간 마을과 뭍을 이어준 유일한 통로로 약 150m의 길이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다. 또한 영주에서 맛봐야 할 음식으로 영주 사과, 영주 한우와 한과를 소개했다. 충청북도 제천은 의림지와 청풍호반, 그리고 용추폭포를 소개했는데, 제천은 해설사와 함께 하는 먹방 여행 ‘가스트로 투어’를 소개했는데 한식이 낯선 외국인들에게 좋은 여행이라고 전했다. ‘스테이케이션’은 휴가를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쉬면서 즐기는 여행 방법으로 경기도 양평을 추천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2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근거리로 유명 관광지는 두물머리와 용문사 은행나무, 자전거길 등을 소개했다. 양평은 특히 해장국으로 유명한데 양평의 한우 품질이 우수해서 이로 인해 소의 내장과 선지를 주재료로 하는 해장국이 대표 음식으로 꼽히게 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충청북도 단양은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1시간 20분 정도에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단양은 단양 팔경으로 꼽히는 도담삼봉,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또한 단양은 마늘의 고장으로 마늘 순대와 마늘 닭강정 등을 방송했다.

경상북도 안동은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곳의 대표 먹거리로 안동 찜닭을 소개했다. 안동 찜닭은 안 동네의 사람들이 닭에 온갖 야채를 넣고 끓여먹었던 것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와 대구에서 후라이드 치킨이 유행하자 그에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닭요리를 개발했다는 찜닭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한국을 달리는 유튜버 180만 유튜버 데이브 V로그’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수도사’를 방문해서 사찰 음식의 대가로 꼽히는 적문 스님께 ‘홍시 죽순채 무침’을 배웠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2. 26.	시청률	0.078

【총 평】

‘아름다운 60대를 함께 그립니다’편에서는 그림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마흔의 나이에 그림을 배우러 영국으로 떠난 뒤 화가로 돌아온 60대 중반의 귀촌 20년 차 여성이 자급자족하는 삶을 소개했다. 그 동안 살던 집을 개조해 만든 하우스 갤러리를 통해 예술 동호인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작은 음악회, 토종씨앗 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을 전달했다.

특히 팍팍한 삶을 탈피해 예술을 매개로 나누며 사는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건강한 삶, 나누는 삶, 소확행을 그린 휴먼 스토리가 몰입도와 공감도를 높였다. 이 밖에 영국 유학, 귀촌 후 하우스 갤러리 운영, 예술로 하나된 사람들 등 이색적인 소재가 호기심을 유발했다. 복합예술 공간, 파자마 파티, 생활미술, 갤러리 작은 음악회, 토종씨앗 지킴이, 재활용품 이용으로 환경보호, 슬로푸드 모임 운영 등 다양한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60대 중반의 귀촌 20년 차 여성은 뒤늦게 시작한 영국 유학생활을 끝내고 경기도 파주로 귀촌해 그간 꿈꿔왔던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실현시켰다. 처음에는 돈에 맞추느라 외진 시골로 왔지만 평범한 시골집이 아닌 갤러리 같은 집을 완성시켰다. 이른바 ‘그림이 사는 집’으로 그릴 수 있는 공간에는 꽉꽉 그림이나 예술작품을 채워 넣었다. 그림의 집이라는 화가의 갤러리에는 문턱이 없는 예술세계가 펼쳐진다. 그림의 집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마음을 터놓는 마법같은 집이 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녀가 꿈꾸고 결심했던 시골에서 강아지 키우면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이루었다.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림을 매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50~60대의 비슷한 연령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참가자들과 편하게 그림 그리기를 시도하며 그림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진다. 더불어 파자마 파티를 겸한 그림 이야기를 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무거움을 나눈다.

시골에 자리 잡은 뒤 주인공의 작품 세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른바 생활미술로서 난로를 만들기 위해 용접을 배우기도 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주인공의 감각을 깨웠고 그림에 국한되지 않는 정크아트 등으로 작품세계가 넓어진 것이다.

주인공은 예술을 입힌 토종씨앗 텃밭을 조성했다. 예술적 감각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텃밭이다. 우리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땅에서 자란 가장 안전한 토종씨앗에 대한 관심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인공의 마음은 토종씨앗 보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소비로도 나타난다. 또한 슬로푸드 모임을 위해 콩죽을 준비한다.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이용한 콩죽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이외에도 말린 가지 볶음도 준비한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슬로푸드는 맛과 건강까지 담은 귀한 음식들이다. 이는 음식을 통해 건강한 삶 전반을 아우르는 방식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2. 27.	시청률	0.011

【총 평】

‘친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 결속다지기 행보를 통해 현재 북한의 내부 동향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보았다. 함경남도 연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차를 타고 나타나자 엄청난 수의 북한 군인들이 차 주위를 에워싸고 ‘김정은 결사옹위!’를 연호하는데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상화와 독재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떨쳐내는 방법, 그리고 참모들이 계획한 아첨일 수 있다. ‘이슈텔링’은 조총련으로 알려진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 2 세대가 일본 속에서 심한 멸시와 차별을 겪었다면 3, 4세대 재일교포들은 다른 위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 국가를 사이에 두고 살벌한 대치중인 두 강대국이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북한 함경남도 연포 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차량을 통해 귀가하던 중 현장에 모인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 의해 차량이 둘러 쌓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루프를 열고 몰려드는 주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해산할 것을 권하는 모습이 알려졌는데, 철저히 의도된 장면이라는 의견이다. 북한의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최고 지도자의 경호진과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에 달려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민들에게 사랑받는 최고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하는 가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마음을 간파한 참모들의 계획에 따른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슈텔링’에서는 민단학교와 조총련학교가 이념으로 갈라진 모습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일본 조선학교는 교육의 내용이나 시스템이 북한 그대로이다. 조선학교는 수학여행도 북한의 명소를 다녀오고 있으며, 백두산과 금강산, 주체사상탑 등 북한에서 선전하는 곳을 방문해 북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이유는 김정일 주석 당시 ‘조총련 조직 안에서 조선 학교는 생명선’이라는 교시가 있었다고 한다. 조총련을 이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조선학교 학생이기 때문이다. 조선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간부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1박 2일 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념교육과 체력 훈련까지 받고 있다. 재일동포가 조선학교에 진학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연장선이며 재일교포 사회는 가족과 같은 연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조선학교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진학을 하게 되거나 혹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진학을 하는 사례도 있다. 조선학교 출신으로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가족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꼰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2. 27.	시청률	0.006

【총 평】

청년 간호사이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인 30대 청년을 소재로 남자 간호사로서의 직업 세계, 애로사항, 에피소드, 보람 등을 세밀하게 다뤄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어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남자간호사로서의 어려움보다는 간호사란 직업의 어려움에 대해 외국사례를 들어가며 담담하게 잘 담아냈다. 간호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과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간호사란 직업을 간접 체험하고 간호사란 직업에 매력을 느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과정을 공감할 수 있게 잘 풀어냈다. 또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직업을 알아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의 소중함, 장기이식의 골든타임 등을 다뤄 장기기증에 대한 캠페인 효과가 돋보였다. 특히 꼰대다방의 사장과 알바생역할로 티격태격 논쟁을 벌이는 포맷과 예능성이 가미된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간호사는 아직 여성의 비율이 많은 직업이지만 남자간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이 50%, 3년 내는 80~90%에 이를 정도로 힘든 직업이다. 업무 특성상 긴급하고 안 좋은 분들이 병원이 있으니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물도 못 마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일이 안 끝난다. 우리나라 일반 병동 간호사들은 간호사 1명당 10~2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1명당 4~6명의 환자를 담당한다. 주인공은 간호사인 작은 누나가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봐라”고 말해 고등학생 때 봉사활동을 했는데, 간호하는 모습이 멋있고 숭고해 보였다.

어르신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대해주지만 불편해하는 젊은 여성들은 동료 여자간호사한테 업무를 부탁하기도 한다. 아직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초기에 남자간호사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힘을 많이 쓰는 특수부서로 배치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병동으로 배치 받는 간호사가 늘고 있다. 처음 병원에 입사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적는다. 그걸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병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간호사는 성별과 체격보다 숙련도와 경험이 중요하다. 큰 병원의 경우 팔이 부어서 혈관이 잘 안보이거나 고령이어서 혈관 잡기 힘든 환자들이 많이 있어 곤란이 상황이 있다.

흉부외과 간호사로 4년 간 일하다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유족과 기증자분들의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뜻이 생명 나눔으로 이어지기까지 법적 의학적 행정적 절차를 조율하는 사람이다. 장기이식 골든타임은 심장은 6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4시간 이내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기증자와 이식자의 만남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의 '생명나눔 희망우체통'을 통해 기증자 가족과 이식 수혜자가 1:1로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2. 27.	시청률	0.008

【총 평】

‘여순사건 보복의 시작 - 여수 민간인 희생 사건’은 여수에 있는 14연대가 1948년 10월 19일,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의 진압 명령에 불복하자 정부가 강경 진압한 사건이다. 특히 반란군이 여수를 떠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짧게 잘랐거나 군용 속옷을 입은 사람,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거나 일본식 운동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해 법의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한 잔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승만은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고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경 진압의 방침 아래, 8일 만인 10월 27일 이후에도 계속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2년 1월 21일 시행한 여순특별법은 지역에서도 금기시 되었던 비극의 진실을 규명하는 시작이 되었다.

【구성 및 내용】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에는 옛 14연대 주둔지가 있는데, 14연대는 광주의 4연대 1대대를 주축으로 1948년 5월 4일 여수에서 창설된 국방 경비대이다. 여수 14연대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에 불복하며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가 강경 진압을 방침으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펼쳐 10월 27일 여수 지역의 치안을 회복한 것이 ‘여순사건’이다. 그러나 진압군과 경찰 등은 이미 반란군이 여수를 떠난 상황에서도 살벌한 분위기속에 반군협력자와 좌익혐의자 색출을 진행했다. 머리가 짧거나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사람 등을 색출하며 주민들을 반군 가담자나 혐의자로 분류하여 여러 장소에서 총살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10월 23일 이승만은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경고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경진압의 방침 아래 8일 만인 10월 27일 이후에도 계속 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故) 김응생님의 아들은 “10월 19일 여수에서 위령제를 하면 제주 4.3사건 유족들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명이 올라온다.”며 “여수 14연대가 제주도로 내려왔다면 제주에서는 한 명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고맙다고 말한다고 한다. 또 여수 14연대가 일으킨 것은 반란인가 물으면 “아니다 항명이다”라고 제주 유족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씨는 가족들과 함께 고구마 수확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게 끌려가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잊어라. 아버지가 돌아올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유언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게 잊히겠나 싶어요. 용서는 될지 몰라도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1일 여순특별법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로 억울한 죽음과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2. 27.	시청률	0.000

【총 평】

‘독거노인을 위한 AI 반려봇’은 급속한 고령사회 추세와 코로나19 비대면 사회변화에 따른 독거노인 보호 차원에서 개발된 어르신의 건강지킴이 ‘다솜이’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판 뉴딜이 곧 나의 뉴딜임을 일깨워주었다. AI 반려봇 다솜이의 필요성,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이점을 주고 있는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본 점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다솜이를 통해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여성 보호 방범용, 긴급 구조 활용으로 이어지는 각종 이점을 설명한 부분이 설득력을 높였다. 다솜이 목소리를 손주의 목소리로 담는 문제, 생필품 구매, 교통 및 의료 예약 기능까지 미래에 달라질 다솜이의 모습을 소개해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도와줘, 살려줘”라고 말하자 위급상황 사이렌이 울리고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모습을 소개해 다솜이가 독거노인들의 구호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구성 및 내용】

노인 돌봄서비스 로봇인 다솜이 로봇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의 부회장을 만나 노인 돌봄서비스 로봇의 의의부터 인공지능, AI로봇 다솜이 소개, 다솜이 로봇 개발, 다솜이의 미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다솜이는 카메라, 화면이 탑재되어 가족들과의 영상 통화, 말벗 등의 기능이 있다. 다솜이의 ‘말벗’ 기능은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독거노인과 24시간 함께 하고 있어서 고립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다솜이는 사랑의 순 우리말로 가족처럼 사랑을 나눈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다솜이는 화면이 있고 카메라가 있어 멀리 사는 가족과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핵심기능인 말벗을 통해 어르신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아침에 어르신이 일어나면 동작을 인식해 먼저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말을 건넨다. 동작인식을 싫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평소 생활패턴을 학습해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응급상황에서 “다솜아, 살려줘”, “다솜아, 도와줘” 하고 말하면 보호자나 생활보호사한테 연락을 해준다. 돌봄로봇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직접 판매는 어렵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에서 구매해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솜이가 노인 돌봄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1인 가구, 여성 안전, 아동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솜이 개발의 부사장은 “앞으로 다솜이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하나만으로 생필품을 구매, 교통, 병원 예약 등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니어 메타버스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